

민주당, '이동관 탄핵' 당론 채택 불발... 오늘 의총서 재논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전략 논의
오송지하차도 참사·YTN 매각
고채 상병 외압수사 국정조사 요구
당론, 개식용 종식·5호선 예타 면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송지하차도 참사·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정이 예상되는 9일 본회의에서의 전략과 당론 추진 사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의총 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제2공평지하차도가 폭우와 인근 미호천의 범람으로 침수돼 14명이 사망했던 사고다. 당시, 사고

위험성을 경고하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지명과 보도전문채널 'YTN'에 공기업 지분 매각 등을 정부의 '방송장악'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고(故)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이후 벌여졌던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과정을 국정조사를 통해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을 11월 중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여당과의 협의 절차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 식용을 반대하는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논란이 있었고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는데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실행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개식용 종식을 매듭지을 여건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이미 한정애 의원이 개 식용 종식 관련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이 띄우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논란에 대응해 지하철 5호선을 김포로 연장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에선 김포갑의 김주영 의

원이 이미 해당 법안을 발의해냈다.

당초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됐던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9일 열리는 의총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탄핵 소추 가능성이 제기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은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임명되지 몇달되지 않은 이 위원장의 탄핵이 조급하지 않냐는 질문에 윤 원내대변인은 "검토 사항에 따르면 짧은 책임 기간에 수없이 명백한 위법행위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본회의 상정을 지연시키려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찬성토론을 준비하고 본회의장은 상임위원으로 당번의원을 정해서 본회의장 지킴이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홍준표, 인요한에 "尹 이용해먹는 세력 정리해달라"

인 위원장 '보수 텃밭' 대구 찾아
"총선 위해 연말까지 도와달라" 호소
홍 "들보잡들 나서서 중진 군기 잡아"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8일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연일 쓴소리만 듣고 다니는 모양새다. 인 위원장은 8일 '보수 텃밭' 대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다. 인 위원장은 최근 당내 통합을 위해 이준석 전 대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대표 등을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했는데, 홍준표 시장을 만난 것도 이와 맥락이 같다.

인요한 위원장은 홍준표 시장에게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도와 달라 했지만, 홍 시장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선을 그었다. 오히려 인 위원장에게 당을 향한 쓴소리만 쏟아냈다.

인 위원장은 전날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는데 "국민의힘이 환자"라는 반응만 듣고 왔고, 지난 4일엔 이준석 전 대표를 찾아갔을 때는 면담하지 못하는 등 난관을 겪고 있다.

인요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북대학

교에서 대학생들과 만난 후 대구시청에서 홍준표 시장과 만나 약 15분간 회담을 가졌다. 인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대구를 찾은 것은 혁신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인 위원장은 홍 시장에게 "평소 시장

님을 존경한다"며 "유머로 정치 코멘트를 하시니까 재미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총선 승리를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시장님께서 도와달라"며 "연말까지 도와주시면 안되겠나"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홍 시장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부터 혁신위가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호가 호위하고, 대통령을 이용해먹는 세력들의 문제가 크다"며 "혁신위에서 그런 세력들을 정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인 위원장은 "명심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최근 혁신위가 언급한 대통령 측근들의 총선 불출마 또는 혐지출마 요청을 당 지도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친윤계(친윤석열계) 인사를 맹비난했다. 특히 '들보

잡(듣도 보도 못한 잡짓)', '발바닥' 등에 비유하는 등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홍 시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들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들 군기를 잡는다"고 비난했다.

홍 시장은 인 위원장의 도움 요청에도 "들보잡들은 내년에 자동 정리될 것"이라며 "(그들이) 총선에 관여하지 말라고 조치를 다 취해줬는데, 지금에 와서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다. 내년에 새 판이 짜인 뒤에 그때 새로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연말까지 좀 도와달라"고 재차 언급했고, 홍 시장은 "(지금) 만나서 말하는 게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친윤계가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는 돕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홍 시장은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탈당 예정인 사람이지만 나는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당에 남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예진 기자 syj@

당정, '민생 중점 행보' '김포 서울 편입'으로 지지율 회복

尹 국정 운영 지지율 37%
與 지지율 36%로 野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37%를 기록하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36%로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내일이 총선일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접전을 벌일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 대한 민심은 "아직 어렵다"는 분위기다.

최근 윤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 당정 지지율은 지난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선거 패배와 당 혼란상으로 인해 흔들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 지지율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로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

해 지난 4~5일 진행한 정치 여론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 포인트)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달 7~8일 실시한 직전 조사에 비해 긍정 평가가 약 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2%로 4%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직전 조사에서 기록한 국민의힘 35.3%, 민주당 32.6% 지지도와 큰 차이가 없다.

또 지난 6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10월 30일~11월 3일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6.8%로 1.1%포인트 올랐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주 연속 상승해 37.7%를 기록했다. 민주당(44.8%)과는 7.1%포인트 차이가 나지만, 직전 조사(12.2%포인트)에 비해

민주당과의 격차가 좁아졌다.

이는 최근 윤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야당 인사들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소통 행보'와 '민생 타운홀'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거나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해 민생 대책을 언급하는 등 '민생 행보'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념'보다 '민생'을 중점에 둔 행보가 긍정적으로 비춰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역시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게 징계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김포 서울 편입'으로 이슈를 주도해서 지지율이 안정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공매도 제한 역시 국민의힘이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역시 지지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 기자

尹,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英 국민방문

>> 1면 '尹, 취임 첫 APEC 참석'서 계속

올 대관식 이후 첫 국민 초청

김 차장은 "다른 다자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몇몇 국가와 양자회담을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아직 확정단계가 아닌 논의단계라 현재 국가 수와 (정상회담을 할) 나라의 구체적 이름은 알릴 수 없는 단계임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APEC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18일 저녁에 귀국하고 19일에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내각 장관으로부터 국내 현안 및 경제 상황을 보고 받고 필요 사항을 지시할 예정이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부터는 3박 4일 일정으로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민방문한다. 김 차장에 따르면 영국 왕실은 연간 두 번 정도 국민을 접수하는데 찰스 3세 국왕이

올해 대관식 후 초청한 국민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의회연설을 통해 한-영 관계의 태동과 성장 역사를 돌아보고 양국이 함께 지향할 미래 비전과 협력·발전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22일은 수석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영 비즈니스 포럼을, 23일에는 처칠 위령을 방문하고 찰스 3세 국왕과 작별인사를 하고 영국 국민일정을 마무리한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23일 2박 4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한 활동에 나선다. 오는 28일 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앞둔 시점 방문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와 준비 상황을 표명하고, 막판까지 유치 교섭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